

지역 소식통

고창군-한국PD연합회
고창방문의 해 성공 맞춘다

고창군과 한국PD연합회가 11일 오후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브랜드 가치 강화와 공동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고창군 군수실에서 만나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협력과 우호 증진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주요 문화관광자원 홍보하게 된다.

김종일 한국PD연합회장은 "앞으로 고창군의 세계유산도시 고창 이미지를 제고와 확산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다양한 홍보매체에서 고창이 홍보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정읍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 8일부터 6월 2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51억 9,600만원으로, 체납액의 2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예금 및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4%를 차지한 질서위반행위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탈에 대해 변호관을 영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피어나는 녹두꽃, 자라나는 평화'

제56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11일 성황 속 열려... 혁명 위상 제고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제56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인 11일(황토현전승일) 피어나는 녹두꽃 자라나는 평화'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개최됐다.

국가기념일에 맞춰 국가기념식과 동시 개최된 올해 행사는 특히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최초로 승리를 거둔 황토현전승일 승전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보는 계기였다는 평가다.

기념제는 다양한 연령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황토현전승일 승전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국댄스경연대회, 미래 역사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 의식 확립을 위한 '청소년 사생대회·백일장', 동학농민군의 율림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한 '전국 소년소녀 합창대회' 등 청소년에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성황 속에 펼쳐졌다.

기념제 본행사는 황토현전승일 즉 국가기념일인 5월 11일을 의미하는

511명의 정읍시 읍면동 농약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학 그날의 합성'으로 시작했다.

이학수 시장을 선두로 511명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돌며 동학농민혁명과 혁명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퍼포먼스에는 기념제에 앞서 9일 시작된 제 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에 참석한 아르헨티나의 마르코스 토레스 리마 알타르시아 시장, 아일랜드 디어드레 포드 코크 시장, 탈스 로너건 더블린 부시장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제3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에 선정된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이하 우금티사업회)와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 시상도 진행됐다.

우금티사업회는 매년 10월 경 우금티 순국영령 추모 제례 및 우금티 예술제를 지내면서 차질했던 동학농민군의 희생을 기려오고 있다. 충남 공주에 있는 우금티전적(사적 제387호)은 1894년 두 차례에 걸쳐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격전이 일어난 곳이다. 동

학농민군 최후 전적지로 기록돼 있다. UCC 공모전 수상작인 여주여자중학교의 '여중의 전설'은 학생들이 정읍을 방문하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곳곳을 돌며 시민이 중심이 되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정읍시의 모습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냈다.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인기 가수인 이석훈과 홍진영, 로보트로닉 하모닉스가 선정한 무대를 꾸몄고 기념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드론 퍼포먼스 '동학, 그날의 향연'은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임을 강조하여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과 연계해 개최된 올해 기념제는 정읍의 황토현전승일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전국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양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과 기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정읍시에 맞는 인구 정책 발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 시행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정읍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특화된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영우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실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용역 수행기관인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의 기본계획 및 추진상황을 들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및 중·장기계획 검토, 연계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보완 과정을 거쳐 지역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도 연계 수립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민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용하여 우리시에 맞는 인구 정책들을 발굴하겠다"며, "인구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현세대, 이후 세대의 현실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사업만큼 이에 대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억원 달성... 인기 답례품 장어 · 고구마 · 땅콩순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5개월 만에

고창군은 전날(10일) 모성건설 김영산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0만원을 쾌척하면서 제도 시행 5개월 만에 2억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영산 대표는 아산편 운곡마을 출신으로 광주에서 건설기업을 운영 중이며, 고향 사랑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다.

김영산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의 새로운 활력을 주고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 개척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대 기부자(100%세액공제 혜택 등)가 88%를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3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기 답례품으로는 고창의 특산품인 장어, 고구마, 땅콩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2억원 달성으로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민과 출향민이 있는 고향사랑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와 함께 타 지역에서 고창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관계인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의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세계 고혈압의 날 캠페인 실시

부안군은 오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과 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알기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5월 둘째주부터 2주간 고혈압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혈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사망 위험 요인 1위로 발표한 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이며 전 세계적으로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지만 성인의 약 40%가

고혈압을 인지하지 못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고혈압학회의 '고혈압 팩트시트2022'에 따르면 20~30대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은 19%로 20대 이상 전체 인지율 69.9%에 비해 낮게 나타나 젊은세대의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안군 보건소는 오는 15일 부안터미널 사거리 등에서 고혈압 예방가두 홍보를 시작으로, 15일~17일 보

건소 1층에서 내소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바로알기 건강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30~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부안군 내 어르신부터 직장인까지 모두 아우르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혈압 당노 인지율을 높이고 올바른 생활습관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변산마실길 1~2코스 샤프스타데이 활짝

5월에는 부안 변산마실길 1코스(국립세만금간척박물관~송포항), 2코스(송포항~성현항)에 샤프스타데이 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 변산마실길의 샤프스타데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매년 이 시기 휴일에는 1코스와 2코스에 사진작가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특히 이번 개화 시즌에는 연휴가 많아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로 북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부안 변산마실길의 샤프스타데이 개화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로 상당 기간 지속되어 서두르지도 않아도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샤프스타데이의 주요 서식지는 변산 마실길 1코스와 2코스 시점부에 조성되어 있다. 시점 부근은 많은 인파로 혼잡할



수 있으나 시작점을 벗어나 마실길을 계속 걷다 보면 데이지 꽃이 마실길 곳곳에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데이지 꽃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으니 이 기회에 마실길을 한번 걸어 보길 추천한다.

샤프스타데이의 꽃밭은 만사를 인내한다. 순진, 평화로 변산마실길에 어울리는 꽃이다. 변산마실길 해안 참외길 옆으로 펼쳐진 잔잔한 푸른 바다와 하얀 꽃을 보면 만사가 평온해진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